

## 2024 KORA OPEN 결과 보고

2024 KORA OPEN 대회가 지난 11월 22일 엘리시안 강촌CC 에서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12년과 14년을 제외하고 12회차로 열린 2024 KORA OPEN은 한국조사협회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골프대회입니다.

24개의 KORA 정회원사, 준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10개조 4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올 가을 첫 강한 한파가 예상되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바람이 없는 온화한 날씨 덕분에 참가자 모두 부상없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회를 주최해주신 조일상 코라회장, 대회진행을 주관해주신 최인수 코고회장,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인 전년도 우승자 케이스탯리서치 박승열 회장께서 각 코스별로 시타를 하면서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코라오픈에 대한 후원 가이드를 결정해 주셔서 코고총장단이 원하는 현금으로 후원을 해주신 이사회와 그 밖의 알찬 상품권으로 후원해주신 회원사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팀의 골프장 부킹을 해주신 지앤컴리서치 지용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사는 모여서 조식, 대회진행, 점심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일상 KORA 회장의 개회사와 건배사로 시상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KOGO 운영 준칙을 업데이트하여 전원시상, 운철기삼, 독식금지(중복수상, 우승/메달리스트 연속수상 금지, \*중복수상 가능: 포토제닉/행운상/다타상), 현장중시(No Show, No Soup) 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조일상 KORA 회장의 개회사



▶ 나윤정 KOGO 총장의 진행



#### 4. 후원사 소개 (회장사 200만원, 부회장사 100만원, 이사사 50만원 등)

회사명	후원내역	회사명	후원내역
글로벌리서치	현금 100만원	입소스	현금 50만원
닐슨아이큐	현금 100만원	칸타코리아	상품권 50만원
리서치랩	현금 50만원	케이스탯리서치	현금 100만원
리서치림	상품권 70만원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현금 50만원
마크로밀엠브레인	현금 100만원	피엠아이	현금 50만원
엠브레인퍼블릭	현금 100만원	한국갤럽	현금 100만원
메트릭스	현금 200만원	한국리서치	현금 100만원
서던포스트	현금 50만원	현대리서치	현금 50만원



▲2024 KOGO 우승 트로피



신페리오 방식의 대회 우승자는 서던포스트의 정준석 실장이었습니다. 우승 스코어는 71.4타(75타)로 우승트로피, 그린자켓과 함께 부상으로 에코골프화를 받으셨습니다.



최저타 선수에게 주어지는 메달리스트상은 케이스 텃리서치 박승열 회장이 72타, 이븐의 기록으로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핑구스 패딩베스트를 받으셨습니다.

준우승자는 한국리서치 김기주 본부장이 72.6타(81타)로 차지하여 카스코 파워 토네이도 유틸리티를 부상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여자부 우승자는 한국리서치 정재선 대표가 75.6타(84타)로 역시 카스코 파워 토네이도 유틸리티를 부상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카스코 유틸리티는 모두 한국리서치에서 가져가셨습니다^^



니어리스트는 1.2m로 가깝게 붙인 매트릭스 나윤정 대표가,  
 롱기스트는 작년보다 20미터를 더해 250미터를 날려보낸 조일상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두 분께는 르쿠르제 플라워 접시세트와 타이틀리스트 벨트를 각각 선물로 증정하였습니다.



다버디상은 낄슨아이큐코리아의 이두영 상무가 2개를 기록하여 수상하였고,  
 13개의 파를 기록한 엠브레인의 최인수 대표가 다파상을,  
 15개의 보기를 기록한 칸타코리아 윤성민 이사가 다보기상을,  
 11개의 더블을 기록한 글로벌리서치 최원석 부사장이 다오리상을 수상하여 르쿠르제 크리스마스접  
 시세트/사각접시 세트, 타이틀리스트 벨트, 빌레이앤보호 고블렛 글라스세트를 각각 가져가셨습니다.  
 \*사실 윤성민 이사도 버디를 2개 했는데, 다보기상 상품이 더 맘에 들어 양보했다는 후문도 있음.



중복시상을 금지하여 각 조별로 성적 우수자를 가린 조별 우승자 10명(사진 좌측부터 지그재그로, 직책생략 : 임성호, 권정미, 남진만, 박준빈, 양요한, 이병일, 김용섭, 정우성, 지용근, 홍성기)에게는 지포어 모자와 축하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다타상에는 대회 전날 급 대타로 참석한 현대리서치 전상현 이사가, 행운상에는 올해 큰 결심을 하고 처음 참석해주신 입소스코리아 박황례 대표가 차지하셨습니다. 부상으로는 더욱 열심히 연습하시라는 의미에서 타이틀리스트 1등급 로스트볼 20개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상을 준비하였으나 좋은 스코어와 실력에도 불구하고 상을 못받으신 총 19분께서는 아차상으로 말본 양말셋트를 드려서 격려하였습니다. 수상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사무국에서 선정하여 증정하는 포토제닉상을 위해 각 조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p>1조: 따로 또 같이 (조일상, 박준빈, 최원석, 신정호)</p>	<p>2조: 우승의 노를 저어라 (임성호, 정중호, 목래균, 박보미)</p>	<p>3조: 얼굴없는 ABBA (김지연, 이두영, 박황례, 권정미)</p>
		
<p>4조: KORA 만세!만세! 만만세!!! (김호석, 남진만, 김기현, 전상현)</p>	<p>5조: 챔피언조 파이팅! (최인수, 정준석, 김기주, 지용근)</p>	<p>6조: 갈대밭...아무일도 없었다 (정재선, 전민주, 김용섭, 하동근)</p>
		
<p>7조: 들어는 봤나? 투온? (정우성, 김진성, 강윤모, 박종백)</p>	<p>8조: 깡부아이가~ (박승열, 김범주, 양요한, 윤경로)</p>	<p>9조: 코고 총장의 무게와 권위 (니윤정, 김규철, 홍성기, 이재근)</p>
		
<p>10조: 텔레비전에 ㅇㅇㅇ... (이병일, 윤성민, 이창수, 최호철)</p>	<p>1등-9조</p>	<p>2등-10조</p>

올해는 포토제닉 상을 두 개 조에게 드렸는데, 1등은 9조의 “코고총장의 무게와 권위”가, 2등은 10조의 ‘텔레비전에 ㅇㅇㅇ...’가 차지했습니다. 열심히 찍어주신 모든 조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참신한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행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KORA OPEN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024.11.26.  
KORA 사무국 드림